

# 지성 “‘판사 이한영’, 단순 법정 드라마 아니라 생각했죠”

“이한영을 통해 이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작품”

“판사 이한영”은 단순한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부정, 타락 등 어둠을 사랑했던 한 인물이 그 어둠과 결별하는 여정을 그린 드라마로 보고 접근했죠.”

배우 지성은 지난 2일 열린 새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 제작발표회에서 이 드라마가 그간 시청자들이 봐 왔던 법정물과는 결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판사 이한영’은 돈과 권력에 순응해 대형 로펌이 시키는 대로 판결했지만 결국 버림받은 이한영 판사(지성 분)가 우연히 10년 전 젊은 시절로 회귀하면

서 과거 삶과는 달리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지성이 판사역을 맡는 것은 2021년 tvN 드라마 ‘악마판사’ 이후 5년 만이다.

지성은 “드라마 ‘악마판사’와 ‘판사 이한영’ 두 작품은 결이 분명히 달랐다”며 “다시 판사 역할을 맡는다고 해서 부담이 되진 않았다. 이 드라마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악마 판사’와는 다르게 이 작품은 이한영이란 인물의 감정을 그린 스토리”라며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나아가는 이한영을 통해 이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원진아 역시 ‘판사 이한영’은 일반적인 법정 드라마들과는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봤다.

그는 “처음엔 재판 장면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판보다 밖에서 뛰고 기 싸움을 하는 장면들이 더 많았다”며 “이한영 판사와 공조할 때도 진지한 무게감보다, 어떻게 해야 더 분위기를 띄



배우 지성이 지난 2일 열린 ‘판사 이한영’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고 통쾌함을 주고,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상의해가며 촬영했다”고 했다.

극 중 원진아는 복수를 꿈꾸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김진아 역을, 박희순은 권력욕이 넘치는 형사수석부장판사 강신진 역을 맡았다.

이 작품은 동명 인기 웹소설·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웹소설과 웹툰의 합산 조회수는 1억회에 달한다.

박희순은 “처음 4권의 대본을 받아 봤는데, 1, 2부엔 제 역할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며 “3, 4부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서 원작 웹툰을 정주행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작품은 이한영을 어떤 배우가 맡는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했는데, (2015년) ‘MBC 연기 대상’에 빛나는 지성 씨가 맡았다는 이야기에 묻

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정했다”며 웃음 지었다.


‘판사 이한영’은 새해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이자, MBC의 올해 기대작 중 하나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만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14%의 시청률을 보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SBS 드라마 ‘모범택시3’와 편성이 겹쳐 일각에선 우리의 목소리로 나왔다.

연출을 맡은 이재진 PD는 “솔직히 부담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저도 ‘모범택시3’를 몰래몰래 챙겨보고 있는데, 저희와는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드라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드라마는 생각보다 장르적으로 복합적인 부분이 많다”며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11월 17일 천문역연 (062)673-2427	
<div>子</div>	쥐띠: 주말의 여유는 잊고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뛰겠다. 36년생: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고 활력이 넘치니 기분 좋은 하루가 예상된다. 48년생: 기다리던 자녀나 지인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날 아와 근심이 사라진다. 60년생: 공들였던 중요한 거래나 계약이 성사될 운이니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라. 72년생: 주춧부터 업무가 산더미처럼 쏟아지지만, 능히 해결하고 능력을 증명한다. 84년생: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잘 살피고 눈치 빠르게 행동해야 화를 면한다. 96년생: 모임이나 회사에서 어디를 가나 인기가 폭발하니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행운의 수: 1,6 행운의 색: 빨간색
<div>丑</div>	소띠: 우직한 독성으로 밀고 나가면 장애물도 저절로 비켜간다. 37년생: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 차 한 잔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라. 49년생: 내 주장만 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다. 61년생: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아도 순리대로 술술 풀리니 걱정하지 마라. 73년생: 직장에서 승진이나 좋은 보직으로 이동할 예감이 드는 기분 좋은 날이다. 85년생: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언행을 무겁게 하라. 97년생: 간절히 원하던 시험 합격이나 취업 운이 따르니 희망을 가져라. 행운의 수: 5,8 행운의 색: 노란색
<div>寅</div>	호랑이띠: 당신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빛을 발하는 하루다. 38년생: 다리에 힘이 풀릴 수 있으니 거동이 불편하면 지팡이를 꼭 챙겨라. 50년생: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존경받으니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라. 62년생: 꼭 막혔던 사업 운이 시원하게 트이니 자금 회전이 원활해진다. 74년생: 골치 아팠던 은행 대출이나 금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86년생: 경쟁사나 다른 부서로부터 스퀴트 제의가 들어오니 몸값이 된다. 98년생: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거나 이직할 운이 들어오니 변화를 받아들여라. 행운의 수: 3,8 행운의 색: 청색
<div>卯</div>	토끼띠: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길하다. 39년생: 입맛이 없어도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건강 관리가 장수의 비결이다. 51년생: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문서와 관련된 좋은 일이 생긴다. 63년생: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돈을 막아야 한다. 75년생: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속을 챙겨라. 87년생: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니 외모에 신경 써라. 99년생: 열심히 일한 대가로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성과금을 받는다. 행운의 수: 2,7 행운의 색: 화이트
<div>辰</div>	용띠: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기엔 최적의 날이다. 40년생: 오래되어 고장 난 가전제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에 좋은 날이다. 52년생: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니 무조건 순종하라. 64년생: 투자 수익이 발생해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지인들에게 한턱내라. 76년생: 의욕이 앞서 과로하기 쉽다. 건강이 재산임을 잊지 말고 쉬어가라. 88년생: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니 외모에 신경 써라. 99년생: 열심히 일한 대가로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성과금을 받는다. 행운의 수: 9,4 행운의 색: 검정색
<div>巳</div>	뱀띠: 화려한 결모습보다는 내면의 실속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41년생: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 집안이 평화롭고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 53년생: 자녀나 아랫사람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고 입이 귀에 걸린다. 65년생: 무리한 일상에 활력을 줄 새로운 취미 생활에 푹 빠져보라. 77년생: 이사가 운이 들어오니 새로운 보금자리를 알아보거나 준비하라. 89년생: 연인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미래를 약속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99년생: 웅돈이 부족할 수 있으니 아껴 쓰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라. 행운의 수: 2,8 행운의 색: 초록색
<div>午</div>	말띠: 열정적으로 달리는 것도 좋지만, 주변을 살피는 여유도 필요하다. 42년생: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조심하고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라. 54년생: 보충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니 아무리 친해도 절대 서주하지 마라. 66년생: 주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덕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78년생: 참연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니 놓치지 마라. 90년생: 짝사랑하던 이에게 진심을 전하면 성공하여 연인이 된다. 92년생: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수: 7,3 행운의 색: 주황색
<div>未</div>	양띠: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인복이 쌓여 훗날 큰 힘이 된다. 43년생: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넉넉한 하루를 보내면 마음이 풍요롭다. 55년생: 투자는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7년생: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었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화해하라. 79년생: 직장 내 지열한 경쟁에서 실력으로 승리하여 인정받는다. 91년생: 독하게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성공해 예뻐진다. 93년생: 눈높이를 맞추면 원하던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획득한다. 행운의 수: 5,1 행운의 색: 베이지
<div>申</div>	원숭이띠: 재치와 유머가 넘치니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다. 44년생: 미루지 말고 건강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몸 상태를 체크하라. 56년생: 자녀가 효도 선물을 사주고 찾아오니 집안에 웃음꽃이 핀다. 68년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독스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80년생: 모임이나 회의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92년생: 회의 시간에 낸 참신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인정받는다. 94년생: 짝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할 수 있으니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아라. 행운의 수: 4,9 행운의 색: 은색
<div>酉</div>	닭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다. 45년생: 피곤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낮잠을 자며 쉬어야 회복된다. 57년생: 형제간에 서로 도움 일이 생기니 우애가 더욱 돈독해진다. 69년생: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당장 등록하라. 81년생: 업무상 다툼이 생기면 솔기롭게 극복하여 전화위복으로 삼는다. 93년생: 동호회나 스티디 모임에 참석하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 95년생: 첫 버리고 외출하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자신감이 생긴다. 행운의 수: 0,5 행운의 색: 핑크
<div>戌</div>	개띠: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이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라. 46년생: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도 대응하지 말고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58년생: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 미리 체크고 병원에 가라. 70년생: 일시적인 자금 압박이 있으나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82년생: 그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에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성공한다. 94년생: 친구에게 돈을 빌리던 사이가 멀어지니 절대 금전 거래하지 마라. 96년생: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성적이 쑥쑥 상승하여 보람을 느낀다. 행운의 수: 3,7 행운의 색: 브라운
<div>亥</div>	돼지띠: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정직한 방법으로 가치 있는 날이다. 35년생: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정서적 안정을 찾아라. 47년생: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은 오늘은 피하고 다음으로 미뤄라. 59년생: 힘들어하는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라. 71년생: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존경받는다. 83년생: 공동이나 황재수는 없다. 오직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따른다는 정직한 하루다. 95년생: 가슴 속에 품었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행운의 수: 1,6 행운의 색: 회색



전국교통방송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 ~ 08:53)  
프로듀서: 정회준 | 진행자: 노희설 |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도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tbN 차차차 (14:05 ~ 15:53)  
프로듀서: 권유경 | 진행자: 윤지현 | 작가: 정안숙  
출몰운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른함을 타파하는 시간!  
충겨운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남도매거진 (16:05 ~ 16:55)  
프로듀서: 이진아 | 진행자: 장원나 |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맞춤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섭하지라~

달리는 라디오 (18:05 ~ 19:53)  
프로듀서: 김미경 | 진행자: 최용규 |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광주방송

KCTV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주요 소식을,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V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뜻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

현장인터뷰 이사람 < '전국 수석 수능 만점' 서석고 최창우 학생 >  
'불수능' 이라고 불렸던 2026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전국 수석 만점을 기록한  
광주 서석고 최창우 학생과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만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공부 비법과 학생 최창우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방송 : 1월 6일(화)~1월 9일(금) 12:00~12:30

네트워크발굴 서울광광 < '우아한' 광주 대표 개장 맛 >  
4곳의 케이블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현지의 맛과 맛의 현장.  
이번 화는 광주 동국의 개장의 맛을 전국으로 세계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촌동의 우아한 개장을 찾아가 그 맛의 진수를 경험한다.  
방송 : 1월 7일(수)~1월 9일(금) 11:15~11:30

SO네트워크 < JCN울산방송 - 청춘! 동구를 노래하다 >  
청년이 줄어가고 있는 지방 도시, 하지만 울산에 머무르며 울산 동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방송 : 1월 9일(금) 13:00~13:50

CMYK